

松江 鄭澈의 漢詩에 나타난 作法과 儒者의 자연관

윤인현*

— <차 례> —

1. 序論
2. 『詩經』과 『楚辭』의 受容에 따른 作법과 創新
 - 1) 『詩經』 구절의 用事와 新意
 - 2) 『楚辭』 구절의 點化와 新意
3. 作法을 통해 본 儒者의 자연관
4. 結論

<국문초록>

본고는, 松江 鄭澈의 한시에 수용된 『詩經』과 『楚辭』의 의미파악과 그의 한시에 나타난 유자의 자연관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의 역사와 故事 그리고 經書의 내용을 用事하고 중국 前代 문인의 문학 작품을 點化하여, 작품의 내용을 더욱 알차고 풍부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의 작품에서는 精切하지 못한 용사와 도습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본고에서 행한 용사와 점화의 구별은 그동안 용사와 점화를 혼동해서 행해온 기존 연구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儒者의 自然觀은, 서구의 자연관의 관점에서 자연적 소재가 지닌 특징만을 살핀 것이 아니라 유자의 관점에서 다시 재론한 것이다. 유자의 자연관은,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出處觀이나 人倫의 道를 행하는 등의 인간 생활과 관련된 것과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을 현실과 연관시켜 보는 관점이다.

송강의 한시 작품에 반영된 유자의 자연관은 戀君之情·憂國之情·忠節의 내용이 있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出仕하여 우국과 충절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朋黨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나친 연군지정을 보

* 인하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교수.

인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송강의 문학이 철저했던 유자의 문학관에 따라 군주에 대한 허물을 은근히 들어서 밝게 간했는지, 어진이를 사모하고 대중을 포용할 줄 알았는지, 아니면 남의 단점을 숨겨주고 남의 장점을 세상에 드러내주었는지 등을 선비정신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松江, 漢詩, 詩經, 楚辭, 用事, 點化, 儒者の 자연관, 선비精神, 朋黨

1. 序論

본고는, 松江 鄭澈의 漢詩에 수용된 『詩經』과 『楚辭』의 의미 파악과 그의 한시에 나타난 儒者의 자연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송강 문학에 반영된 『시경』과 『초사』 작품을 살펴본 연구가 아직까지는 미진하며, 특히 『시경』시가 반영된 작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송강의 문학에 반영된 중국 문학의 수용을 밝힌 선행 논문에는 작법에 대한 연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재론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 외 용사와 점화의 작법을 통해 자연관을 드러낸 작품도 유자의 자연관에서 아울러 살펴 볼 것이다.

송강은 그의 漢詩에 중국 역대 시인들의 작품을 수용하였다. 東晉시대의 陶淵明을 비롯하여 唐나라의 주요 작가는 물론이거니와 宋나라의 蘇東坡와 林逋·王安石·陸游·朱熹 등의 작품까지 수용한 것은, 송강의 독서량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송강의 많은 작품의 淵源이 중국 문학에 있기에 그 수용의 방법을 통해서 송강의 創出新意의 美學을 논해봄으로써 그의 문학적 역량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 최고의 문학 작품집인 『詩經』과 남방 문학의 白眉인 『楚辭』를 반영한 작품으로 국한하여 한시 작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經書와 故事의 수용은 한시 작

범류 용어로 用事라하고, 前人의 시에 나타난 뜻을 쓰되 그 뜻의 어느 지점으로부터 변화를 加하여 새로운 意境을 부여하는 작법류 용어를 點化라고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아직도 용사와 점화가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기에¹⁾, 두 작법을 구사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松江의 자연관도 儒者가 지녔던 自然觀의 개념에 맞게 살필 필요가 있기에, 작법을 통해 드러난 자연관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송강은 조선 시대 유자의 자세를 견지한 문인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송강 한시에 나타난 자연관 연구는 서구의 자연관 관점이나 소재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대부분 행해졌다.²⁾ 이들 연구도 그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송강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는 청한하고 적막한 것을 즐기 위해서이고, 하나는 시국을 근심하고 임금을 그리는 정을 펴기 위해서”³⁾라고 하였다. 송강이 “淸閒寂寞之娛”라고 한 것처럼, 유자도 樂山樂水하였던 것이다. 철저한 유자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껏 자연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이야 말로 인간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1) 金甲起, 『松江 鄭澈의 漢詩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1~244쪽.

董達, 『朝鮮詩歌에 나타난 中國詩文學의 受容樣相 研究』,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1~421쪽.

문철호, 『松江文學 研究』-漢詩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1~164쪽.

崔台鎬, 『鄭松江 文學 研究』,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2,181쪽.

2) 崔珍源, 『松江과 孤山의 詩境』, 『論文集』 3집, 성균관대학교, 1958, 122~135쪽.

朴煥圭, 『松江의 詩에 나타난 自然觀 研究』, 『국어문학』 20권, 1979.

金聖基, 『松江의 漢詩에 나타난 自然觀』, 『人文學志』, 忠北大學校 人文學研究所, 1993.

金廷珉, 『松江의 漢詩에 나타난 自然觀』, 『漢字漢文教育』 제18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007.

3) 鄭澈, 『松江集』, 『續集』 卷2 『雜著』, 『水月亭記』, “一以淸閒寂寞之娛, 一以敘憂時戀闕之情.”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는 일치하기에 자연을 노래하는 것과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 결코 동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유자는 賞自然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면서도 현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송강이 “敍憂時戀闕之情”이라고 한 것처럼, 본고는 유자의 관점에서 그의 시에 담긴 자연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儒者의 자연관이란, 세상살이에서 인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현실을 잊지 않는 마음까지 포함되는 것을 이룬 말이다. 임금에 대한 戀君의情과 세상을 잊지 않는 태도도 유자의 자연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의도한 연구 방향에 따라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기존 연구⁴⁾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본고의 논의에 반영될 것이다.

4) 金甲起(1984), 앞의 논문. 참조

金善子, 『松江 鄭澈의 詩歌 研究』-漢詩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1~125쪽.

金廷珉, 『松江文學의 思想的 背景과 自然觀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1~212쪽.

문철호(2011), 앞의 논문 참조

董達(1994), 앞의 논문 참조

俞睿根, 『松江 鄭澈 文學 研究』-漢詩文을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5, 1~226쪽.

鄭堯一, 『儒家的 自然觀』, 『語文研究』제148號,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10, 425~442쪽.

2. 『詩經』과 『楚辭』의 受容에 따른 作법과 創新

1) 『詩經』 구절의 用事와 新意

먼저 송강이 『詩經』의 내용을 인용한 작품을 고찰하고자 한다. 작시 중 『시경』시를 인용하여 新意를 부여했다면 用事が 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 用事란, 故事와 古人語·古人事·古人官·經書 구절 등 시문을 짓을 때 이끌어다 씌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보완하는 작법이다. 자신의 말만 하다 보면 논리가 갇지 않은 말을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魏慶之의 『詩人玉屑』에는 “대개 詩語는 經史를 출입하게 되는 데에서 자연히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모름지기 이것을 많이 보고 많이 지어서 하여금 스스로 글짓는 숨씨와 風骨을 먼저 세워 家를 이루게 한 뒤에야 하여금 經史 가운데의 완전한 말을 얻어서 일체가 되게 해야 한다.”⁵⁾라는 구절이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經史의 구절이 또한 흔히 用事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 말 최자는 『補閑集』에서 六經과 三史도 用事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⁶⁾ 작품을 보자.

<안참의 자유의 집에서 술을 대하여 희음하다.>(安參議自裕家對酒戲吟)

이때 동강 남언경이 함께 가서 시를 지었다. 安의 字는 계홍.(時南東岡彦經同往賦詩安字季弘)

그대 집에 술이 있어 시고도 잔데,	君家有酒酸且醎,
신맛은 정계함과 흡사하구려.	酸味還同鄭季涵.
나라와 집에 쓸모없으면,	於國於家俱不用,

5) 魏慶之, 『詩人玉屑』, 『用事』, 127쪽. “大率詩語出入經史, 自然有力, 然須是看多做多, 使自家機杼風骨先立, 然後使得經史中全語作一體也.”

6) 崔滋, 『補閑集』 卷中, “凡爲國朝制作引用古事, 於文則六經三史.”

강남으로 돌아가 눕는 것만 못하다. 不如歸去臥江南.⁷⁾

송강은 안 참의가 대접한 술맛이 시고도 짜다고 평하였다. 그러면서 그 신맛은 송강 자신과 흡사하다고 自嘲하였다. 자조의 이유가 나라와 집안에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나라에 쓸모가 없는 존재라면 자연으로 돌아가 賞自然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만 같다고 하면서도 현실에 미련을 두고 있다. 위의 시 “그대 집에 술이 있어 시고도 짠데”는 『詩經』, 『小雅』篇, ‘魚麗’章에 “고기가 통발에 걸렸으니, 날치와 모래무지로다. 군자가 술이 있으니, 맛있고 또 맛있도다.”⁸⁾라는 시구의 “君子有酒, 旨且多.”를 인용한 것이다. 이 노래는 燕饗에 통용되는 노래로, 잔치에 올리는 음식을 가지고서 그 아름답고 또 많음을 지극히 말하여, 주인의 禮意가 밝고 성품이 부지런하여 손님을 우대함을 나타낸 것이다. 송강도 안 참의의 맛있는 술을 대접은 받았지만, 그 맛은 시고도 짜다. 송강 당시의 상황이 出仕에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의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술맛이 시고도 짠 것이다. 송강이 『시경』시 구절을 인용은 했지만, 그 뜻을 표절한 것은 아니다. 『시경』시는 주인이 잘 차린 술을 칭송한 내용인데, 송강은 자신의 현재 처지에 빗대어 주인은 손님을 위해 정성껏 술상을 차렸지만, 그 맛은 신고 짠 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더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안 참의가 차린 술상은 풍성하지만, 지금 자신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는 뜻을 전하였다. 송강은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술맛이 시고도 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경』시의 내용을 인용하여 집주인의 풍성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지금 자신의 심정도 아울러 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새롭고도 참신한 뜻

7) 鄭澈, 『松江集』, 『續集』, 卷1 <安參議自裕家對酒戲吟>(이하 國譯『松江集』 참조)

8) 『詩經』, 『小雅』篇, ‘魚麗’章 “魚麗于罟, 鱈鯊. 君子有酒, 旨且多.”

을 더했기에 용사라 평할 수 있다.

<밤에 앉아서>(夜坐)

하얀 달은 이미 고개에 솟아났는데,	華月已吐嶺,
산들바람 솔솔 불어 방장 흔드네.	涼風微動帷.
갑자기 때의 질서를 느끼게 되니,	忽忽感時序,
아득하고 아득한 나의 그리움만 더해 간다.	悠悠增我思. ⁹⁾

戀君의 情을 느끼는 시이다. 밝은 달이 동산 위에 떠오르고 산들 바람까지 불어오니 갑자기 절기를 느끼게 되면서 오지 않는 임이 생각난다는 것이다. 『詩經』, 『鄭風』篇, ‘子衿’章에 “푸르고 푸른 그대의 옷깃이여, 아득하고 아득한 나의 그리움이다. 내 비록 가지 못하나, 그대는 어이하여 소식을 잊지 않는고”¹⁰⁾와 『詩經』, 『邶風』篇, ‘終風’章에 “하루 종일 바람 불고 또 흠비가 내리나, 순순히 즐겨 오기도 하나니.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지라, 아득하고 아득한 내 그리움이로다.”¹¹⁾ 그리고 『詩經』, 『邶風』篇, ‘雄雉’章에 “저 해와 달을 보니, 아득하고 아득한 내 그리움이로다. 길이 멀기도 하니, 언제나 오실까?”¹²⁾ 등이 있다. 전술한 『시경』시는 모두 아득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데 송강은 그 그리움에 더하여, 戀君之情을 담았다. 아름다운 자연과 절기가 바뀌는 그 순간에도 임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賞自然의 아름다움에만 빠진다면 그것은 철저한 儒者의 문학은 아닐 것이다. 유자는 현실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송강도

9) 鄭澈, 『松江集』, 『原集』 卷1 <夜坐>.

10) 『詩經』, 『鄭風』篇, ‘子衿’章 “青青子衿, 悠悠我心. 縱我不往, 子寧不嗣音.”

11) 『詩經』, 『邶風』篇, ‘終風’章 “終風且霾, 惠然肯來. 莫往莫來, 悠悠我思.”

12) 『詩經』, 『邶風』篇, ‘雄雉’章 “瞻彼日月, 悠悠我思. 道之云遠, 曷云能來.”

연군으로 현실 의식을 드러내었다.

<挽笑菴>¹³⁾은 號가 笑菴인 사람에 대한 만시이다. 만시는 망자와 대화하듯이 생전의 업적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애도하는 시이다. 상대의 친밀도에 따라 만시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다. 소암은 송강과 지기였던 모양이다. 소암이라 호를 지어 놓고 일생동안 무엇을 웃고 허둥대며 살았는지 우습다는 말이다. 그래도 한 평생 웃으면서 일생을 보내다 이제는 편작도 소용이 없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그래서 덕 많이 주고 수명을 아낀 하늘에다 뜻을 물어 보고 싶지만 그마저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저승에 가서 현실의 일들을 잊고 편안히 지내라고 冥福을 빌면서도, 살아 있는 자의 슬픔을 드러냈다. <挽笑菴> 중 “덕 많이 주고서 수명은 어찌 아꼈는고(既豐以德還壽壽.)”는 『詩經』, 『大雅』篇, ‘既醉’章의 “이미 취하되 술로써 하고, 이미 배부르되 은덕으로써 하니, 군자가 만년에 너에게 큰 복을 크게 하리로다.”¹⁴⁾를 취한 것이다. 『시경』, 『대아』편 ‘기취’장의 이 노래는 『詩經』, 『大雅』篇, ‘行葦’章에 대한 답시이다. ‘행위’장에는 周나라 황실이 충후하여 仁德이 초목에까지 미치고 안으로는 九族이 화목하며 노인을 봉양하고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복록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취’장은, 그 음식과 은덕의 후함을 누리고 그 복 받기를 원함이 크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송강은 이 『시경』의 내용을 반대로 인용한 翻案法으로, 하늘이 덕을 많이 주고 수명도 연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이 같은 변안법은 문학 작품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송강은 용사의 변안법을 통해, 망자의 덕성

13) 鄭澈, 『松江集』, 『原集』卷1, 七言古詩, <挽笑菴> 笑以名菴笑何事, 笑殺浮生何草草. 回頭更笑世道危, 一笑不休頭盡皓. 頭盡皓眼亦枯, 二豎忽乘扁鵲走. 茫茫天意不可問, 既豐以德還壽壽. 駒城西頭松檜蒼, 魂兮於此歸徘徊. 笑矣乎. 天地萬事一長休, 死者不知生者哀.

14) 『詩經』, 『大雅』篇, ‘既醉’章 “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

이 잘 형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새로운 의미까지 드러내었다. 徐居正이 『東人詩話』에서 “그 뜻을 뒤집어 쓰는 것은 재주가 탁월한 자가 아니면 스스로 능히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¹⁵⁾고 한 것처럼, 송강의 문학적 재능도 확인할 수 있다.

<성절사 홍군서의 行을 보내다>이름이 履祥(送聖節使洪君瑞之行, 名履祥)

이별이 느닷없이 맑은 술동이를 대했는데,	離懷忽忽對清樽,
용만의 비바람에 풀과 나무 어둡구려.	風雨龍灣草樹昏.
높고 큰 祝壽로 황제의 생신에 조회하니,	萬壽岡陵會慶節,
2년의 병란에 재생시킨 은혜로세.	二年兵甲再生恩.
세월은 덧없이 물과 함께 흘러가고,	光陰荏苒隨流水,
기러기는 어지럽게 해문을 지나가네.	鴻雁差池過海門.
연시의 슬픈 노래 지금도 있는지,	燕市悲歌今在否,
나를 위하거든 망저군을 먼저 조문하시게.	爲余先弔望諸君. ¹⁶⁾

명나라 황제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사신 가는 홍이상에게 주는 전별 시이다. 홍이상의 字가 君瑞이다. 홍군서가 성절사로 간 해가 1594년 갑오년 초이다. 임진왜란은 1592년 4월에 일어났으며, 그해 말과 1593년 1월에 명나라 원군도 참전한 전쟁이다. 이런 전쟁의 와중에 명나라 황제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성절사로 가게 된 홍군서에게 보낸 시이다.

느닷없는 이별에 술을 대하기는 했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전별연의 자리는 음산하기까지 하다. 그래도 명나라 황제의 탄신을 『詩經』, 『小雅』篇, ‘天保’章의 내용으로 송축하였다. “높고 큰 祝壽로 황제의 생신에

15) 徐居正, 『東人詩話』 卷下. “反其意而用之, 非材料卓越者, 自不能到.”

16) 鄭澈, 『松江集』, 『原集』 卷1 <送聖節使洪君瑞之行>

조희하니”의 ‘岡陵’은, 『소아』편, ‘천보’장의 “하늘이 그대를 보정하사, 흥성하지 않음이 없는지라. 산과 같고 언덕과 같으며, 산마루와 같고 구름과 같으며, 냇물이 막 이르는 것과 같아, 붙어나지 않음이 없도다.”¹⁷⁾의 시적 의미를 인용한 것이다. ‘천보’장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답하는 시이다. 임금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낮추어 그 정사를 이루고, 신하는 아름다움을 임금에게 돌려 그 윗사람에게 보답한다는 내용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명나라의 군사적 도움으로 왜군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을 『시경』, 『소아』편, ‘천보’장의 내용을 통해, 임진왜란 2년의 난리로 인해 명나라 천자의 은혜가 더 크게 되었다는 의미를 함축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

“기러기는 어지럽게 해문을 지나가네”의 ‘鴻雁差池’는, 『詩經』, 『邶風』篇, ‘燕燕’章의 “제비와 제비의 날음이여, 가지런하지 않은 그 깃털이로다. 이 사람(대규)이 돌아감에, 멀리 들에서 전송하노라. 멀리 바라보아도 미치지 못하여, 눈물 흘리기를 비 오듯이 하노라.”¹⁸⁾의 시적 의미를, 인용한 것이다. ‘연연’장은 齊나라 공주이면서 衛나라 제후 莊公의 부인인 莊姜이 陳나라에서 시집 온 之子 곧 戴嬀(대규)를 전송하면서 부른 노래이다. 장강은 아들이 없어, 陳나라에서 시집온 媯 대규의 아들 完을 양자로 삼았는데, 장공이 죽자 完이 제후의 자리를 물려 받았다. 그런데 嬀人의 아들인 州吁가 完을 시해하고 제후가 되었다. 그러므로 대규가 진나라로 영영 돌아감에 장강이 그를 전송하면서 부른 노래이다. 대규가 자식을 잃고 친정이 있는 진나라로 돌아가면서도 오히려 장강을 위로하기에 더욱 마

17) 『詩經』, 『小雅』篇, ‘天保’章 “天保定爾, 以莫不興. 如山如阜, 如岡如陵, 如川之方至, 以莫不增.”

18) 『詩經』, 『邶風』篇, ‘燕燕’章 “燕燕于飛, 差池其羽. 之子于歸, 遠送于野. 瞻望弗及, 泣涕如雨.”

음이 아프고, 그의 순하고 어진 마음¹⁹⁾에 감복 받을 뿐이라는 것이다. 『시경』시에 담긴 장강의 이런 슬픈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성절사로 떠날 西人인 홍군서를 배웅하고자 한 것이다.²⁰⁾

송강의 마지막 인사인 듯 슬픈 감정이 담긴 전별시를 연경으로 떠나기 전 홍군서가 받은 것이다. “연시의 슬픈 노래”는 燕나라 樂毅의 故事이다. 전국시대 燕나라가 齊나라의 침공을 받아 패망의 시기를 맞고 있을 때, 趙나라 출신이면서 燕나라 장수 악의가 秦·趙·韓·魏 등의 5개국의 연합군 장수가 되어 제나라와 전쟁을 하였다. 전쟁 반년 만에 70여개의 성을 빼앗으나 두 지역은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그런 중에 연합군은 돌아가고 연나라 악의만 남아 나머지 지역을 유화책으로 포섭하려고 할 때, 제나라 전단이 악의를 모함하는 流言蜚語로 악의를 연나라 장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였다. 그러나 악의는 자신이 잘못되면 오히려 연나라 왕을 욕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조용히 자기 고향인 조나라 땅으로 돌아가 은둔하고 지냈던 것이다.

악의가 조나라 땅에 가서 받은 官號가 望諸君(망저군)이다. 송강은 성절사로 떠나는 홍군서에게 먼저 북경에 가면, 나를 위해 망저군을 조문해 달라고 하였다. 송강도 1593년 12월에 생을 마쳤으니, 이 시를 지은 해에 강화도에서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송강은 동인의 탄핵으로 은거하다가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우의정에 발탁되어, 그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송강은 그 정여립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인 계파의 선

19) 『詩經』, 『邶風』篇, ‘燕燕’章 “仲氏任只, 其心塞淵. 終溫且惠, 淑慎其身. 先君之思, 以勗寡人.”(중씨[대귀]가 은혜로써 서로 믿었더니, 그 마음 진실하고 깊도다. 끝내 온순하고 또 순하여, 그 몸을 잘 삼갔고, 선군[장공]을 생각하라는 말로써, 과인[장강, 덕이 적은 사람]을 권면하도다.)

20) 윤인현, 『松江 鄭澈의 漢詩에 나타난 用事와 點化』, 『大東漢文學』 第42輯, 대동한문학회, 2015, 101~102쪽 참조.

비 1,000여명이 연루되어 죽이거나 귀양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다음해 좌의정에 승진되었다. 그러나 선조의 왕세자 책봉[建儲]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어 강계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1592년 57세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평안도로 피난 가던 선조께서 개성 남문루에서 백성들로부터 여론을 들을 때, 그 고을 노인이 송강을 유배에서 풀어줄 것을 간정한 일이 있었다. 그 일로 송강은 유배에서 풀려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였다. 왜군이 평남 이남을 점령하고 있을 때, 송강은 兩湖體察使를 지냈으며, 1593년 謝恩使로 명나라 북경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송강 일행이 북경을 다녀온 후, “명나라 조정에서는 왜노가 이미 물러갔다 하여 군사를 출동할 뜻이 없다.”²¹⁾라고 했다. “왜노가 이미 물러갔다”는 말이 사은사로 간 송강 일행으로부터 나온 말이라 하여, 臺諫에서는 論啓하여 推問할 것을 청했던 것이다. 이 일로 송강은 상소하여 사면을 청하고, 강화도 松亭村에 물러나 있다가 58세의 일기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위의 시는 송강이 죽은 해에 쓴 시이다. 이는 악의의 고사처럼, 자신이 잘못되면 선조 임금께 그 잘못이 전가될 수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악의는 제나라 70여 성을 불과 반 년 만에 정복하였고 남은 두 곳 중, 하나인 죽목성 군사와 주민들의 저항에 막혀 5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결국 죽목성을 정복하지 못하자, 그동안 악의에 대한 무고한 내용의 상소가 연나라 소왕에게 올라왔다. 그래도 소왕은 흔들림 없이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더욱 많은 병력을 보내어 힘을 보태주었다.

연나라 소왕이 죽고 그 아들 혜왕이 즉위하자 곧바로 다른 장수 騎劫을 전선으로 보내 악의의 병권을 교체하였다. 이때 악의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연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인 조나라로 돌아갔다. 악의는 부당한 모함에 말려들어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되면 자신도 억울할 뿐 아니라 그

21) 鄭澈, 『松江集』, 『別集』, ‘年譜’下 十一月. “天朝以爲倭奴已退無意出師.”

동안 자신을 믿고 군사를 맡겼던 선왕의 업적까지 훼손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연나라로 복귀하지 않고 고향 조나라로 가서 자기의 신변을 챙겼던 것이다. 송강도 악의처럼 옛날 伍子胥가 吳王 夫差를 도와 先王인 闔閭의 원수를 갚고, 또 楚나라의 수도까지 공략하여 큰 공을 세웠지만 주변 간신과 범려가 보낸 西施의 모함에 걸려 목숨을 잃은 것은 죽은 사람 자신으로 볼 때도 억울한 일이지만, 왕의 잘못된 판단을 더 부각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聖人인 舜임금은 계모의 모함을 받아 아버지 고수가 몇 번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지략으로 살아남았다. 결국 아버지 고수를 감동시킴으로써 효성을 다한 결과가 되었다. 만일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죽었다면 아버지의 허물을 더 부각시키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송강 자신도 臺諫의 推問으로 인해 지금 억울한 심정이지만, 강화도의 우거는 망저군과 같은 심정임을 보여준 것이다. 한 때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임금을 멀리한다면, 더욱 임금의 잘못을 드러낼까 염려가 된다는 것이다. 송강은 망저군의 이야기를 用事하여 忠節의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송강은 『시경』시 구절을 용사한 것이 있다. <약포의 시에 화답하여 흥운의 책에 쓰다>(和藥圃詩題興雲卷)는, 藥圃 李海壽의 시에 화답한 시이다. 同甲인 약포와 자신의 성품과 기호품이 다름을 먼저 서술한 후, “술개야 술개야 하늘을 날고 싶거든, 약포를 찾아가서 두 번 절을 하여라.”²²⁾고 하여, 『詩經』, 『大雅』篇, ‘早麓’章 “술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거늘,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놀도다. 인자한 군자여 어찌 사람을 진작시키지 않으리오.”²³⁾의 “鳶飛戾天, 魚躍于淵.”을 용사한 것이다. 이는 『中

22) 鄭澈, 『松江集』, 『續集』, 卷1 <和藥圃詩題興雲卷> “鳶乎鳶乎欲戾天, 須往再拜藥老前.”

23) 『詩經』, 『大雅』篇, ‘早麓’章 “鳶飛戾天, 魚躍于淵. 豈弟君子, 遐不作人.”

庸』에도 인용되어 있다. ‘저 높은 하늘에도 깊은 연못에도 생명체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도처에 삶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 없으며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다. 천지간에도 도가 살피지는 것을 말한 것이다. 송강은 약포가 천지만물의 조화 속에 도를 지키면서 자기 본분을 행한 인물임을 『시경』 구절을 통해 보여주었다.

송강이 『시경』시를 인용한 것이 모두 6편인데, 그 나머지 한 편도 살펴보자. <석영정 잡영 차운 10수>(息影亭雜詠次韻 十首) 중, 8번째 <桃花逕>의 “고운 빛 춘삼월이 저물어 가고, 어여쁜 복숭아꽃 한 빛깔로 가지런히 피네. 예부터 꽃 아래 길은, 길가는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네.”²⁴⁾의 “어여쁜 복숭아꽃 한 빛깔로 가지런히 피네.”는, 『詩經』, 『周南』篇, ‘桃夭’章의 “복숭아 나무의 요요함이며, 곱고 고운 그 꽃이로다. 이 아가씨의 시집감이며, 그 한 집안을 화순하게 하리로다.”²⁵⁾의 桃花의 아름다움을 인용한 것이다. 인용은 되었지만, 創新이 되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시경』의 내용은 태사가 문왕에게 시집간 때로, 도화가 필 무렵은 바로 남녀가 혼인할 때라는 뜻이다. 그런데 송강의 시에서는 아름다운 계절적 배경으로 단순히 인용되었다. 그래서 精切한 用事가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처럼 송강의 한시에는 『시경』 구절을 인용하여, 그 시적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여 精切한 용사가 된 경우도 있고, 創出新意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인용의 수준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송강은 그의 한시에서 『시경』시를 용사한 경우는, 고마움이나 그리운 마음 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자기 본분을 지키는 인물을 부각시키는 의미로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계절적 배경으로 인용된 경우

24) 鄭澈, 『松江集』, 『續集』 卷1 <息影亭雜詠次韻 十首> 중, 8번째 <桃花逕>

25) 『詩經』, 『周南』篇, ‘桃夭’章 “桃之夭夭, 灼灼其華. 之子于歸, 宜其室家.”

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精切한 용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李仁老가 『破閑集』에서 평한 ‘點鬼簿’·‘西崑體’, 아니면 權應仁이 『松溪漫錄』에서 ‘畫虎不成’이라는 말로 비난했듯이 혹평 받을 수도 있다.

2) 『楚辭』 구절의 點化와 新意

『楚辭』는 屈原과 宋玉 등의 작가가 밝혀진 창작물로서 초나라의 방언으로 초나라 풍속과 초나라 사람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낭만적인 문학이다. 『楚辭』가 ‘초사’라는 명칭으로 등장한 시기는 대개 漢나라 文帝(B.C.179~157) 전후이다. 『楚辭』에 실린 작품으로는 굴원의 대표작인 『離騷』를 비롯하여, 『九歌』·『天問』·『九章』·『遠遊』·『卜居』·『漁父』(어보)·『大招』²⁶⁾ 그리고 송옥의 작품인 『九辯』·『招魂』²⁷⁾과 賈誼의 작품인 『招隱士』, 東方朔의 『七諫』, 嚴忌의 『哀時命』, 王褒의 『九懷』, 劉向의 『九歎』, 王逸의 『九思』 등이 있다. 송강의 한시에는 굴원의 작품이 많이 모방되어 있다. 그 이유는 송강도 굴원처럼 유배와 낙향이라는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點化란, 前人의 시에 나타난 뜻을 쓰되 그 뜻의 어느 지점으로부터 변화를 加하여 詩 작품에 쓰는 것을 말한다. 점화는 원래 인용이나 모방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뜻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蹈襲²⁸⁾에 그치게 되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면 점화가 되는 것이다. 換骨奪胎도 점화의 작법을 구체적인 문자로 표현한 작법류 용어로서, 점화라는 말과 크게 다

26) 『楚辭』, 『大招』를 朱熹는 景差의 작으로 보고 있다.

27) 司馬遷은 『史記列傳』에서 『招魂』을 屈原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28) 도습이란, 前人의 시구에 나타난 뜻을 그대로 되밟아 쓰고 따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작가는 누구나 점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후대의 독자나 비평가가 그 작품의 인용 부분을 보았을 때, 새로운 의미를 더하지 못했으면 도습이라고 평하게 된다. 도습은 평어류 용어이다.

를 것이 없다. 宋나라 陳善은 『捫蝨新語』에서 “문장은 비록 古人の 한글자 한 구절도 蹈襲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換骨奪胎法이라는 것이 절로 있으니, 이른바 靈丹 한 톨로 철을 점찍어 금을 이루어 내듯이 하는 것이다.”²⁹⁾라고 하여, 도습은 꺼려하고 환골탈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면서 점화가 잘 된 경우는 ‘點鐵成金’으로 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송나라 葛立方도 『韻語陽秋』에서 “시인들에게는 換骨法이라는 것이 있으니, 古人の 뜻을 써서 點化하여 (자기의 시로) 하여금 더욱 더 공교롭게 하는 것이다.”³⁰⁾라고 하여, 점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송강의 작품 중, 『초사』를 점화한 한시로 戀君之情을 보인 작품을 살펴보자. 『초사』의 작품에는 임금을 미인에 비유한 작품이 많다. 『離騷』의 “아아! 초목이 시들고 떨어짐이여. 임금 섬길 날이 더디고 저무는 것을 걱정하다.”³¹⁾와 『九章』 ‘抽思’의 “임의 무심한 마음을 엮어서 글로 써서, 가져다가 임에게 드리리다. 지난 날 임이 나에게 언약하시기를, 황혼녘에 만나기로 기약했건만.”³²⁾과, 그리고 『思美人』에 “미인을 그리워하여 눈물을 닦으며 우두커니 바라보네. 중매가 끊기고 길이 막혀서 말을 맺어 전할 수 없구나.”³³⁾ 등에는 미인이 임금에 비유되어 있다. 이처럼 송강의 작품 중에도 임금을 미인에 비유한 것이 많다.

29) 陳善, 『捫蝨新語』 “文章雖不要蹈襲古人一言一句, 然自有奪胎換骨法, 所謂靈丹一粒, 點鐵成金也.”

30) 葛立方, 『韻語陽秋』 “詩家有換骨法, 用古人意而點化之, 使加工也.”

31) 『楚辭』, 『離騷』 “惟草木之零落兮, 恐美人之遲暮.”

32) 『楚辭』, 『九章』 ‘抽思’ “結微情以陳詞兮, 矯以遺夫美人. 昔君與我誠言兮, 曰黃昏以爲期.”

33) 『楚辭』, 『思美人』 “思美人兮, 擘涕而斫胎. 媒絕路阻兮, 言不可結而詒.”

<제봉의 운에 차하여 정허의 시축에 쓰다>(題靜虛軸次霽峯韻)

손꼽아 헤어보니 산중살이 십년이라,	巖棲屈指十回春,
사직하고 다시 오니 백발이 새롭구나.	謝笏重來白髮新.
수석이랑 친구들은 사랑스럽지만,	水石朋儔雖可愛,
봉래산 소식은 아득하여라.	蓬萊消息杳難因.
산바람 밤에 일어 마른 대 시름하고,	山風夜起愁枯竹,
고개 달 갓 돋으니 바로 미인이라.	嶺月初生是美人.
약 마시고 시 짓노라 잠 못 드는데,	詩卷藥鑪仍不寐,
지붕머리 종소리 맑은 새벽 알려 주네.	屋頭寒磬報清晨. ³⁴⁾

위의 시는 40세 낙향하여 쓴 시 같다. 10세 무렵 계림군의 을사사화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된 후, 26세에 출사를 하여 승승장구하다가 40세에 낙향을 하였다. 위의 시에서 “손꼽아 헤어보니 산중살이 십년이라, 사직하고 다시 오니 백발이 새롭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산수 자연과 벗님들은 모두 사랑스럽고 반갑지만, 임의 소식이 언제 올지 아득하기만 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밤바람 부는 날 대나무는 시름하기만 한데, 고개 마루에 달은 돌아 입을 더욱 그림계 한다는 것이다. 『초사』의 내용처럼 임금이 달에 비유되었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枯竹’을 통해 변하지 않는 충절과 함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종소리를 듣고 있다. <달밤에 짓다>(月夜作)에도 “가을바람 갑자기 일어나서 마른 대 시름하고, 고개 달 갓 돋으니 바로 미인이로세. 저도 모르게 두 번 절을 하고나서, 외로운 신하의 백발이 이 밤에 새로워라.”³⁵⁾라고 하여, 달이 미인에 비유되어 있다. 앞의 시

34) 鄭澈, 『松江集』, 『續集』 卷1 <題靜虛軸次霽峯韻>

35) 鄭澈, 『松江集』, 『續集』 卷1 <月夜作> “秋風乍起愁枯竹, 嶺月初生是美人. 不覺依然成再拜, 孤臣此夜白髮新.”

<題靜虛軸次霽峯韻>과 詩情이 거의 같다. 승구의 구절은 일치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앞의 시 <제정허축차제봉운>은 임의 그리움에 잠 못 드는 밤으로 끝나고, <月夜作>은 반가움에 절까지 하면서 그리움이 끝이 없어 머리카락까지 백발이 된 것으로 다소 과장된 듯하다. 그러니 참신한 뜻을 드러냈다고 평하기는 어렵다. 이 같은 경우는 자기 작품을 蹈襲했다고 후대의 독자나 비평가들이 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하케는 자기 剽竊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경우이다. 두 시에 다 사용된 ‘枯竹’은 임금의 정을 그리워하는 송강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이 반영된 자연물이다. 寤寐不忘 입을 그리워하는데, 고개 마루에서 달이 보이니 자신도 모르게 두 번의 절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의 대한 지나친 연정은 독자들로부터 식상한 표현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다. 자연물을 통한 연군은 유자의 자연관과도 연관성이 있다.

<박희정의 운에 차하다>(次朴希正韻)

손님네들 흩어지고 밤 늦은 높은 다락에,	高樓客散夜將闌,
창랑곡 노래 파하자 밀춧불이 우누나.	歌罷滄浪蠟燭殘.
연꽃을 홀로 따서 어디다 주려는가?	獨采蓮花何處贈,
천리라 구름 끝에 미인이 아득한데.	美人千里杳雲端. ³⁶⁾

밤늦도록 누각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고향의 <어보사>에 나오는 ‘창랑가’까지 부르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외로운 생각은 끝이 없어 눈물도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송강은 주변 환경에 영향 받지 않는 군자화인 연꽃을 따 임에게 보내어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간신인 구

36) 鄭澈, 『松江集』, 『原集』 卷1 <次朴希正韻>

름에 가려진 그 임은 보이지 않는다. “하마 서산을 내려갔던가, 장차 동령에 돌아날 때. 정령히 풍백에게 일러두노니, 조각구름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³⁷⁾의 ‘구름’도 달을 가리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나는 지금 주렴 걷고 기다린다고, 하늘에 밝은 달이 떠오르겠기에. 술잔에 녹이는 더 띠올맛정, 강 구름은 부질없이 나돌지 마소.”³⁸⁾ 역시 ‘구름’은 임을 상징하는 달을 가리는 간신에 비유되었다. 송강은 끝임 없이 달을 임에 비유하여, 그리워하였다. “황혼에 아름다운 달이 있으니, 나는 미인과 더불어 기약을 했네.”³⁹⁾는 『九章』 ‘抽思’의 “지난 날 임이 나에게 언약하시기를, 황혼녘에 만나기로 기약했건만.”⁴⁰⁾을 점화하여, 임을 그리는 간절한 정을 토로하였다. “제 못나서 밝은 시대 보탬이 없고, 늙어가니 정회를 술만이 알아. 시산이라 나그네길 초생달 올라오니, 황혼에 다시금 미인을 기약하네.”⁴¹⁾ 유자로서 태평성대에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어는 객관에 머물면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달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밝은 빛을 나는 임에게 주고 싶은데, 봉래산 꼭대기라 길이 끊겼네.”⁴²⁾라고 하여, 밝은 달빛을 임에게 전하고 싶다는 충절까지 보였다.

<수옹의 운에 차하다 3수>(次壽翁韻 三首) 유순선의 호 정해 지월 폐관 일에 칩암거사라 배함. 이하는 난전에 작임.(柳順善號 丁亥至月閉關日 蟄菴

37) 鄭澈, 『松江集』, 『原集』 卷1 <詠新月> “已下西岑否, 將生東嶽時. 丁寧語風伯, 莫使片雲知.”

38) 鄭澈, 『松江集』, 『續集』 卷1 <海雲亭口號> “吾方捲簾待, 月欲到天明. 樽蟻須添綠, 江雲莫謾生.”

39) 鄭澈, 『松江集』, 『續集』 卷1 <江界謫中次梁青溪韻> “黃昏有佳月, 吾與美人期.”

40) 주 31) 참조

41) 鄭澈, 『松江集』, 『原集』 卷1 <詩山客館> “不才無補聖明時, 老去情懷酒獨知. 客路詩山織月上, 黃昏更與美人期.”

42) 鄭澈, 『松江集』, 『原集』 卷1 <燕子樓次韻> “清光吾欲美人贈, 路斷蓬萊山上頭.”

居士拜以下亂前作)

만 리라 머나먼 진성 나그네,	萬里秦城客,
삼년을 초군에 머물렀다네.	三年楚郡留.
미인은 하늘처럼 멀기만 한데,	美人天共遠,
세월은 물과 함께 흘러가네.	徂歲水同流.
기린각의 꿈은 이제 끊어지고,	夢斷麒麟閣,
귀뚜라미 울음은 가을 슬퍼라.	吟悲蟋蟀秋.
몸을 보호하는 둔한 긴 칼 한 자루,	防身一長劔,
세상일은 머리를 긁을 뿐일세.	世事入搔頭. ⁴³⁾

亂前의 작품이라고 한 것을 보면, 임진왜란 전 유배생활 때 쓴 시이다. 서울로부터 萬리나 떨어진 유배지에서 입을 그리는 마음이 멀기만 하다. 3년이라는 유배 생활에서 오는 절망감을 가을의 쓸쓸함과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통해 시각과 청각화로 형상화하였다. 이제는 자신의 몸조차 스스로 보호하기 힘든 상황에서 두보의 <春望>에 나오는 “白頭搔更短(흰 머리를 긁으니 다시금 짧아지고)”의 ‘頭搔’를 모방하여,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머리만 긁을 뿐이라고 자조하였다. 그러나 송강은 “세상 일 말을 해서 무엇하리까? 타향도 놀러 살면 살 수 있다오, 주름 걷고 달빛을 보기도 하고 베개 베고 시냇물 소리 듣기도 한다오. 병든 눈은 아득아득 안개가 끼고, 센 머리는 마음이 저 물결을 따라, 날마다 한강머리로 향해 가누나.”⁴⁴⁾로, 끝없는 연군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강가의 방뒤[창초]를 캐고 또 캐며, 누각에 기대어 아침저녁 보내노라. 미인에게 바치려도 구름

43) 鄭澈, 『松江集』, 『續集』 卷1 <次壽翁韻 三首 中 一首>

44) 鄭澈, 『松江集』, 『原集』 卷1 <次壽翁韻> “世事那堪說, 他鄉亦可留. 捲簾看月色, 倚枕聽溪流. 病眼濛濛霧. 霜毛個個秋. 歸心逐波浪, 日向漢江頭.”

끝에 아득하니, 두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달렸다고. 뗏목 타려는 공자의 뜻 생각해 보면, 말만 하고 못 행한 것 응당 까닭이 있으리.”⁴⁵⁾라고 하여, 송강은 입에 대한 충절까지 보였다. “뗏목 타려는 공자의 뜻”은 道가 행해지거나 道를 행할 수 있는 세상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고 싶다는 뜻의 말씀이다. 이는 『論語』, 『公冶長』篇, ‘浮海’章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⁴⁶⁾으로, 천하에 어진 임금이 없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 말씀으로 진정으로 현실을 떠난다는 말은 아닌 것이다. 道가 없는 현실이기에 현실을 떠날 수 없어 공자님이 탄식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송강도 道가 없는 현실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입을 자꾸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창오산 순임금께 무릎 꿇고 옷깃 여미고, 소상강 굴원 그려 노래하며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두견새의 울음소리 듣자, 노 젓는 일 멈추고 두 번 절하고 하늘가의 북두성 우러러 보노라.”⁴⁷⁾라고 하여, 『이소』의 “꿰어 앉아 옷깃을 여미고 (순 임금께) 말씀 드림이여, 환히도 내가 이미 중정한 도를 얻었도다.”⁴⁸⁾의 “꿰어 앉아 옷깃을 여미고(跪敷衽)”와 『九歌』 ‘湘君’에 “입께서 가지 않으시고 머뭇거리시니, 아! 물섬에서 누구를 기다리시는가?”⁴⁹⁾의 “夷猶” 곧 “머뭇거리다”를 점화하여, 굴원의 심정을 되새기면서 입에 대한 충성을 호소하였다.

굴원의 『어보사』를 모방한 작품을 살펴보자. 점화도 모방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45) 鄭澈, 『松江集』, 『別集』 卷1 <老病有孤舟> “江邊芳杜聊采采, 延佇日夕憑柂樓. 美人持贈杳雲端, 哀涕一任懸雙眸. 乘桴緬懷魯聖志, 有言不行應有由.”

46) 『論語』 『公冶長』篇 ‘浮海’章 “子曰, 道不行 乘桴 浮于海, 從我者 其由與.”

47) 鄭澈, 『松江集』, 『別集』 卷1 <老病有孤舟> “蒼梧帝舜跪敷衽, 楚魂湘水吟夷猶. 停橈蜀魄起再拜, 止棹北辰瞻天隈.”

48) 『楚辭』, 『離騷』 “跪敷衽以陳辭兮, 耿吾既得此中正.”

49) 『九歌』 ‘湘君’. “君不行兮夷猶, 蹇誰留兮中洲.”

<강마을에서 취한 후 짓다>(江村醉後戲作)

오늘은 선생이 술에 취해서,	此日先生醉,
저물녘에 미친 듯이 물가로 달네.	狂奔暮水濱.
바다로 떠갈 뜻과 같을 지어니,	應同浮海志,
소상강에 빠진 사람 견주지 않아.	不比赴湘人.
아내는 울며 옷을 끌어당기고,	箒妾攀衣泣,
사공은 노를 잡고 성을 내네.	篙師倚棹嗔.
유연히 긴 휘파람을 뿐아 올리니,	悠然發長嘯,
만 리라 창공에 소리 떨친다.	萬里振蒼旻. ⁵⁰⁾

위의 시는 點化와 用事 방법으로 시적 의미를 더했다. “저물녘에 미친 듯이 물가로 달네.”는 굴원의 『어보사』 “차라리 소상강의 흐르는 물에 다 달아서 강물고기의 뱃속에 내 몸을 묻을지언정”⁵¹⁾을 점화한 것이다. 점화라고 한 것은 『어보사』의 내용처럼 물속에 수장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염려하는 자세로 승화되었기 때문이다. “바다로 떠갈 뜻과 같을 지어니”는 『論語』, 『公冶長』篇 ‘浮海’章의 공자 말씀을 용사한 것으로, 굴원처럼 체념하기 보다는 공자가 행한 바와 같이 천하에 아직 도가 행해지고 있지 않아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버리고 먼 고해절도로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자는 현실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자들이 지닌 선비정신이다.

송강의 한시에는 『어보사』를 모방한 곳이 몇 군데 더 있다. “유령은 왜 취했고 굴원은 왜 깰는가?”⁵²⁾와 “공연히 홀로 깰 사람 되었네.”⁵³⁾ 등에서

50) 鄭澈, 『松江集』, 『原集』 卷1 <江村醉後戲作>.

51) 『楚辭』, 『漁父辭』, “寧赴湘流, 葬於江魚之腹中.”

52) 鄭澈, 『松江集』, 『原集』 卷1 <無題> “劉何沉醉屈何醒.”

송강 자신을 청렴결백한 굴원에 비유하였다. 모든 세상 사람이 다 흐리고 취해 있을 때, 굴원 자신만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머뭇거리며 서울을 떠나던 일 웃었더니, 이 걸음 마침내 춘성을 그리네. 강남이라 곳곳마다 대나무가 없지 않지만, 굴삼려의 연못가란 이름 얻을까 걱정일세.”⁵⁴⁾ 막상 서울을 떠날 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비웃으며 떠나왔는데, 진작 강남땅에 와보니 그렇게 떠난 서울이 그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굴원이 못가를 거닐면서 조국 초나라가 망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강과 연못가를 이리저리 거닐면서 안색이 초췌하고 형용이 메마르고 메마른 것처럼,⁵⁵⁾ 송강 자신도 대나무의 절개를 통해 입에 대한 그리움과 우국지정은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어보사』의 내용을 모방은 했지만, 굴원처럼 강물에 투신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剽竊이나 蹈襲에 그치지 않고 새롭고도 알찬 뜻을 부여했기에 점화라 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用事와 點化[換骨奪胎]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논의하기도 하였다. 한시 작법인 용사와 점화는 그 개념이 다르다. 그러므로 동일 의미로 간주하여 혼용하여 사용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점화된 줄도 모르고 시 작품을 감상해도 안 될 것이다. 작품의 내용을 왜곡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송강이 『초사』의 내용을 점화한 경우는, 연군지정과 우국지정, 그리고 입에 대한 충절을 드러내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도습으로 혹평 받을 작품도 있었다. 한편으로 『초사』의 내용을 인용하여 연군과 우국지정을 보인 것은 유자의 자연관과도 관련이 있다.

53) 鄭澈, 앞의 책, <送安君昌國歸龍城> 五首 “空作獨醒人.”

54) 鄭澈, 『松江集』, 『續集』 卷1 <高陽山齋有吟寄景魯> 十首 “去國遲迴笑此行, 此行終是戀春城. 江南處處非無竹, 恐得三閭澤畔名.”

55) 『楚辭』, 『漁父辭』 “屈原, 既放 游於江潭 行吟澤畔, 顏色 憔悴, 形容 枯槁.”

3. 作法을 통해 본 儒者의 자연관

여기서는 작법과 관련된 것으로, 용사와 점화 그리고 도습 등을 통해 그의 자연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서구의 자연관에 입각하여 산천초목의 자연만을 자연으로 생각하여, 우리 인간의 삶은 자연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고해절도나 산수자연에 머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자연으로 인식하여, 그 모습을 주로 연구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주체인 내가 객체인 자연을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정복 내지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구 사상의 자연관은 동양 곧 유가에서 말하는 자연관과는 차이가 있다. 『論語』, 『雍也』篇, 『施濟』章에 “仁者는 천지만물로써 일체를 삼으면 자기 몸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⁵⁶⁾라고 한 부분이 있다. 이는 천지 만물이 내 몸과 같은 것, 곧 物我一體의 경지를 이르는 말이다. 동양에서는 이웃과 만물이 불편하면 내 몸의 혈맥이나 기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물아일체의 자세를, 자연을 보는 최고의 경지로 여겨왔던 것이다.⁵⁷⁾ 철저한 유자로서의 문학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적극적인 현실관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연군지정·우국지정으로도 나타나고 修己治人の 학문적 과정을 중시하는 자세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애민정신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것이 유자의 현실관이며 자연관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유자로서의 전통적인 선비정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선비정신에 바탕을 둔 문학관은 자연을 노래하는 경우에도 현실을 망각한 채 賞自然의 단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실을 염려하는 자세를 보

56) 『論語』, 『雍也』篇, 『施濟』章 “仁者, 以天地萬物, 爲一體”

57) 鄭堯一, 『儒家의 自然觀』, 『語文研究』 제148號,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10, 426쪽.

여준다는 것이다.

儒者의 자연관은, “성인은 감히 천하를 잇는 마음을 두시지 않았다.”⁵⁸⁾ 라고 한 것과, “성인께서 仁을 행하시는 방법은, ‘無道한 세상’이라고 천하를 期必하여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없었다.”⁵⁹⁾라고 한 것, 그리고 주자가 『논어』집주에서 밝힌 “군자가 위태로운 일을 보고서 목숨을 내줄 처지인 곧 위태로운 나라에서 벼슬하는 자로서는 벼슬을 버리고서 떠나야 할 이치가 없거니와, 바깥(남의 나라)에 있는 경우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야 될 법한 일일 것이다.”⁶⁰⁾ 등과 같이, 공자와 성인 등은 어두운 세상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세상을 바로잡고 밝히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것이 선비정신이면서 儒者의 자연관이다. 우리의 삶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자의 자연관을 따르면, 개인의 인간사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사도 자연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유자가 바라보는 현실은 절실한 자연일 수밖에 없고, 그 암담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또한 진정한 유자의 자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자의 자연관은, 세상살이에서 인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현실을 잊지 않는 마음까지 포함되었던 것이다.

<신년축> 五首 중 1首와 2首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新年祝新年祝,
새해엔 개와 양 같은 왜구를 쓸어내고	所祝新年掃犬羊.

58) 『論語』 『微子』篇, ‘耦耕’章에 대한 ‘集註’의 程子の 주석 “聖人, 不敢有忘天下之心.”

59) 『論語』 『微子』篇, ‘耦耕’章에 대한 ‘集註’의 張子の 주석 “聖人之仁, 不以無道必天下而棄之也.”

60) 『論語』 『泰伯』篇, ‘篤信’章에 대한 ‘集註’의 朱子の 주석 “君子, 見危授命, 則仕危邦者, 無可去之義, 在外, 則不入, 可也.”

임의 수레 북방에서 돌아오시어, 坐使鑿輿廻塞上,
임의 길 우리러 보니 해가 거듭 빛나네. 仰瞻黃道日重光.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新年祝新年祝,
새해엔 우리 조정 더욱 맑아져. 所祝新年朝著清.
동서니 남북이니 편당을 없애버리고, 痛掃東西南北說,
일심으로 태평성대 만듭시다. 一心寅協做昇平.⁶¹⁾

위의 시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선조가 의주로 몽진 가 있을 때에 쓴 시이다. 새해에 바라는 <신년축>의 시이니 1593년 새해이다. 1593년 1월이면 송강이 양호체찰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왜구도 소탕하고 북방으로 몽진 간 임금께서 돌아오시면, 우리 조정에는 이제 편당도 사라져 태평성대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論語』, 『泰伯』篇 ‘篤信’章에 대한 ‘集註’의 朱子の 주석처럼, 위태로운 나라 또는 어지러운 나라에서 주어진 책무가 있는 선비로서는, 난관을 극복하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나라의 위기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우리 임금 서울로 돌아오시고 동서의 편당도 사라지기를 소망하였다. 이렇듯 세상사에 대한 관심사도 자연인 것이다.

유자의 자연관은 자연물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현실을 염려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戀君之情 내지 憂國之情 그리고 忠節의 모습도 보여 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61) 鄭澈, 『松江集』, 『原集』 卷1 <新年祝> 五首 중, 제1수와 제2수.

<죽서루 운에 차운하다>(次竹西樓韻)

천리를 다 보자고 누에 다시 올라가니,	欲窮千里更登樓,
구름과 바다 아득아득 두 귀밑 쓸쓸한 가을이라.	雲海茫茫兩鬢秋.
봉래가 어디인가 언제나 오색이라.	何處蓬萊常五色,
여기서 돌아가면 강한과 함께 흐르리.	此歸江漢定同流. ⁶²⁾

첫구는, 왕지환의 <登鶴雀樓>의 “흰 해는 산 너머로 지고, 황하는 바다로 흘러드네. 천리를 다 보려고, 다시 한층 더 올라간다.”⁶³⁾를 모방한 것이다. 왕지환의 <등관작루>는 풍경을 통해 철학적인 면을 표현한 說理詩이다. 광명인 해는 서산 너머로 지고, 황하는 바다로 흘러든다. 천리가 지 바라보는 눈은 다하고 싶어서 다시 한층 더 올라간다. 다시 말하자면, 더 먼 곳, 더 넓은 곳, 더 나아가서 높은 이상을 가지기 위해 한 층 더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송강은 다소 내용이 후퇴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 곧 戀君으로 표현하였다. 인생과 사상의 진취적 기상을 노래한 왕지환에 비해, 송강은 개인적인 소망에 머문 내용이기 때문이다. 후대의 독자나 비평가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기보다는 내용적 의미가 퇴보한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참신한 뜻에 해당되는 창의적인 내용이 되지 못하면 蹈襲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다.

송강 문학에 있어 달은 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어이다. 그리고 그 달빛을 가리는 구름은 간신배를 상징한다. 송강은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 憂國之情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62) 鄭澈, 『松江集』, 『續集』 卷1 <次竹西樓韻> 二首 중 제2수

63) 王之渙, <登鶴雀樓> “白日依山盡, 黃河入海流. 欲窮千里目, 更上一層樓.”

<밤에 하당에 앉아서>(霞堂夜坐)

자리 옮겨 꽃나무와 마주 앉고,	移席對花樹,
층계를 내려가 옥천에 다다랐네.	下階臨玉泉.
인하여 밝은 달을 기다리자니,	因之候明月,
밤새도록 구름 낀 하늘만 바라보네.	終夜望雲天. ⁶⁴⁾

송강은 하서당에 밤중에 앉아 꽃나무와 마주하기도 하고 층계를 걸어 맑은 샘물을 거닐면서 밝은 달을 기다리지만, 달은 끝내 구름에 가려져 볼 수가 없다. 임의 소식이 올 수 없는 현실을 구름에 가려진 자연물을 통해 憂國之情의 심리를 드러내었다. 이는 이백의 <등금릉봉황대>의 “온통 뜬구름이 해를 가리니, 장안마저 볼 수 없어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네.”⁶⁵⁾라는 구절을 새롭게 한 것이다.

송강의 자연관은 연군지정으로 끝이 없다. “술 깨고 보니 하늘엔 별과 달이 밝기만 한데, 국화 피고 단풍 짙은 양벽정에서 분명히 꿈속에 빈 우리 임, 면류관에 의젓한 풍채로 자상히 말씀하시네.”⁶⁶⁾ 양벽정으로 단풍 놀이를 나와 국화를 보고 술도 마시고 놀았는데,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 보니, 하늘에 별들이 총총하다. 그런데 그 잠깐 동안의 꿈속에서 늘 그리던 임을 뵈는데, 그 모습도 의젓하고 말씀도 자상하시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아도 임이 생각나는 것이다. “변방의 외기러기 달도 돋으니, 임 그리며 눈물까지 말라서 소리도 서러워라. 아득한 우리 임 꿈속에서나 만날 뿐이니, 이로부터 이 늙은이 대에 오르지 않으리.”⁶⁷⁾ 밤중에 홀로 대에 올

64) 鄭澈, 『松江集』, 『原集』 卷1 <霞堂夜坐>

65) 李白, <登金陵鳳凰臺> “總爲浮雲能蔽日, 長安不見使人愁.”

66) 鄭澈, 『松江集』, 『原集』 卷1 <漾碧亭> “滿天星月酒初醒, 赤葉黃花漾碧亭. 夢裏分明宣政殿, 玉旒高拱語丁寧.”

라 외기러기가 날아가고 달도 돋으니, 임의 모습이 더욱 간절하게 난다. 그런데 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두견새에 의탁하여 피눈물을 흐리고 있다. 언제나 보고픈 임은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어 이제는 임이 보이는 이 누각에는 오르지 않겠다는 단념의 자세를 취했다.

자연물을 통한 임에 대한 충절도 끝이 없다.

<연자루에 차운하다>(燕子樓次韻)

성남의 깊은 밤 누에 홀로 기댔노라니,	深夜城南獨倚樓,
옥천이라 가을 달무리 멀기도 하다.	玉川秋月影悠悠.
맑은 달빛을 나는 임에게 주고 싶은데,	清光吾欲美人贈,
봉래산 정상이라 길이 끊어졌네.	路斷蓬萊山上頭. ⁶⁸⁾

한밤중 연자루에 올라 달을 바라보면서 저 맑은 달빛을 임에게 보내고 싶은 충절이다. 그런데 임의 곁에는 소인배들로 인해 이 ‘清光’을 전할 수가 없다. 그래도 송강은 자신의 변함없는 충절을 자연물을 통해 임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한 가락 긴 노래로 임을 생각해 보니, 이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새롭구나. 명년 봄 창 앞에 매화꽃이 피면은, 강남의 첫 봄소식을 꺾어서 부치리라.”⁶⁹⁾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노래까지 불러도 그 그리움은 끝이 없다. 그래서 명년 봄에 창 앞의 매화가 피면 나의 절개를 임에게 전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 시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인물인 육개가 북쪽에 사는 친구 범엽에게 보낸 시를 모방한 것이다. “매화를

67) 鄭澈, 『松江集』, 『拾遺』卷6 <夜坐聞鶻> “邊城獨雁月俱來, 淚盡懷君響更哀. 天外建章長入夢, 老夫從此不登臺.”

68) 鄭澈, 『松江集』, 『原集』卷1 <燕子樓次韻>

69) 鄭澈, 『松江集』, 『原集』卷1 <大帖酒席呼韻>

꺾어서 역사를 만나, 농두인에게 부치노라. 내가 사는 강남땅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애오라지 한 가지의 봄을 보내노라.”⁷⁰⁾를, 송강은 충절을 바치겠다는 자기 의지를 더했다. 남쪽 지방에 사는 육개가 일찍 핀 매화를 북쪽 발머리에서 농사짓는 친구 범엽에게 보낸다는 것으로, 두 사람의 우정의 돈독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송강은 매화를 통해서 자신의 변함없는 충절을 임금에게 보내고 싶다는 것이다. 따라서 송강의 충절은 육개가 친구를 그리워하는 순수한 마음을 승화시켜 참신한 맛을 더했다고 평할 수 없다. 연군이 다소 지나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선달 초육일 밤에 앉아서>(臘月初六日夜坐)계사년 겨울 강도에 우거할 때의 작인데, 이것이 절필이다.(癸巳冬寓居江都時作此絕筆也.)

나그네의 외론 섬에 한 해도 저물고,	旅遊孤島歲崢嶸,
남쪽 왜적은 아직 평정하지 못했다네.	南徼兵塵賊未平.
천리 밖 음서는 어느 날에 오려는고?	千里音書何日到,
오경의 등잔불은 누구를 위해 밝은 것인가?	五更燈火爲誰明.
사귄 정은 물과 같아 머물기 어렵고,	交情似水流難定,
수심의 실마리는 실오리 같아 얽히고 더욱 얽혀.	愁緒如絲難更縈.
다행이 원님이 보내 온 진일주가 있어,	賴有使君眞一酒.
눈 쌓인 궁촌에서 화로 끼고 마신다오.	雪深窮巷擁爐傾. ⁷¹⁾

위의 시는 송강이 강화도에 머물던 1593년 겨울에 쓴 시로, 임종 12일 전의 작품이다.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시적화자는, 아직도 우국지정과 연군

70) 陸凱, <江南一枝春>(荊州記 驛寄梅花 詩篇) “折梅逢驛使, 寄與隴頭人. 江南無所有, 聊贈一枝春.”

71) 鄭澈, 『松江集』, 『原集』 卷1 <臘月初六日夜坐>.

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해는 저물어 가고 왜적은 아직도 남쪽 지방에 있어 세상일로 번잡하지만, 후시라도 천리 밖에서 임의 소식이 올까 잠 못 들고 오경까지 등불을 밝혀 놓은 모습에서 끝없는 출세욕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인간사 흐르는 물과 같아 한 군데 오래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이내 체념하면서 고을 원님이 보내준 술로 그 시름을 달래고 있다.

송강은 자연물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연물을 통해 현실적 어려운 측면도 아울러 살폈다. 송강이 행한 연군지정과 우국지정 그리고 충절은 바로 유자의 자연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을 노래하면서 인생 또는 현실을 동시에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우 개인적인 욕망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끝없는 연군지정과 우국지정 같은 송강의 자연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는 선비정신에서 그 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재선비는 어디에 처해도 현실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선비精神이란, 어느 시기 어떤 장소에 처해도 철저한 유자로서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 사람과 세상을 건지거나 바로잡고 밝히려는 뜻을 잊지 않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論語』, 『憲問』篇의 ‘擊磬’章(‘격경’장)에 대한 주자의 주석에서, “성인의 마음이 일찍이 천하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다.”⁷²⁾라고 하였다. 그리고 『微子』篇, ‘耦耕’章에서 孔子가 子路로 하여금 隱者인 장저와 결익에게 나루터를 묻게 하였을 때, 장저와 결익은 사람을 피하는 선비[辟人之士]보다는 세상을 피하는 선비[辟世之士]인 자신들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는데, 隱者들의 그와 같은 대답에 공자는 이르기를, “조수와는 더불어 무리 지어 살기를 같이할 수 없으니, 내가 이런 사람들의 무리[우리 인간의 무

72) 『論語』, 『憲問』篇, ‘擊磬’章 “聖人之心, 未嘗忘天下”

리를 허여하지 않고서[이런 사람의 무리와 더불어 하지 않고서] 누구를 허여하리오[누구와 더불어 하리오]? 천하가 道가 있으면, (나) 丘가 (세상을) 번역시키는 데에 참여하지 않느니라.”⁷³⁾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程子の 주석에서 “성인께서는 천하를 잇는 마음을 감히 두시지 않으셨다.”⁷⁴⁾라고 한 것에서나, 또 그에 대한 장재[장재]의 주석에서 “성인께서 仁을 행하시는 방법은 ‘無道한 세상’이라고 천하를 기필하여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었다.”⁷⁵⁾라고 한 것 등에서, 공자의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다. 세상을 등지지 않는다는 삶의 태도는 공자의 삶의 자세와 유가적 전통의 선비정신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무도한 세상일수록 현실을 떠나지 않겠다는 공자의 그와 같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역대의 철저한 유자들의 삶의 자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철저한 유자들의 문학에서는, 세상이 무도하다고 단정하여 세상을 등지거나 바로 잡는 일을 결코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도한 세상을 풍자하거나 밝혀 보려는 의지를 담은 시들이 많았다.⁷⁶⁾ 송강의 한시에도 세상을 잊지 않으려는 시가 많았다. 그러나 출사하여, 임금의 허물을 은근히 들어서 밝게 諫하며, 致君澤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백성의 근심을 잊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문학에 나타난 연군지정이나 우국지정이 진정으로 유교의 적극성을 보이면서 전통적인 선비정신과 ‘時中의 道’에 따라 벼슬할 만한 때 벼슬하고 물러 날 때 물러났으며, 또 출사하여 유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는가는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73) 『論語』 『微子』篇, ‘耦耕’章 “鳥獸不可與同羣 吾非斯人之徒 與而誰與. 天下有道 丘不與易也.”

74) 『論語』 『微子』篇, ‘耦耕’章 “聖人, 不敢有忘天下之心”

75) 『論語』 『微子』篇, ‘耦耕’章 “聖人之仁, 不以無道必天下而棄之也.”

76) 윤인현, 『다산의 한시에 나타난 선비정신과 자연관』, 『다산학』 19호, 2011, 122~123쪽.

<길에서 걸인을 만나다>(道逢丐者)

부부가 애를 업고 피리 불고 노래하며,	夫簞婦歌兒在背,
남의 문을 두들기다 나무람을 당하네.	叩人門戶被人嗔.
소 물던 일 생각나서 묻지는 않지만,	昔有問牛今不問,
길손이 견디지 못해 눈물을 흘리노라.	不堪行路一沾巾. ⁷⁷⁾

걸인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저절로 눈물이 나는 시적화자이다. 걸인의 사실적인 삶을 통해 사람과의 정을 보이면서 ‘閔時病俗’(시대를 민망히 여기고 풍속을 가슴 아프게 여김)⁷⁸⁾의 자연관을 보였다. 어린 아이를 업은 걸인 부부가 동냥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장면을 차마 볼 수가 없어, 눈물을 흐리는 두터운 人情을 보인 것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禮記』, 『儒行』篇의 공자의 말씀 ‘不忘百姓之病’(백성의 근심을 잊지 않는다)의 선비정신의 발로인 것이다. “叩人門戶被人嗔”은, 『孟子』, 『盡心』章句(上) “백성들이 물과 불이 아니면 생활할 수가 없으나, 어두운 저녁에 남의 문호를 두드리면서 물과 불을 구하면 주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은 지극히 풍족하기 때문이다.”⁷⁹⁾를 용사하였고, “問牛”는 問牛喘의 준말로, 漢나라 때 정승 丙吉이 사상자가 길에 가득 찬 것을 보고서도 묻지를 않다가, 사람이 숨을 헐떡대는 소를 몰고 가는 것을 보고는 “이 소를 몇 리나 몰고 왔느냐”라고 물은 고사이다. 『맹자』 구절과 병길의 고사를 인용하여 걸인의 비참한 생활상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음에 절망감을 느낀 것이

77) 鄭澈, 『松江集』, 『原集』卷1 <道逢丐者>.

78) 朱子, 『詩集傳序』 참조.

79) 『孟子』 『盡心』章句(上), “民非水火 不生活, 昏暮 叩人之門戶 求水火 無弗與者 至足矣.”

다. “또 못 보았나, 西家의 어린 자식 도랑에 버렸으니, 죽어가며 부르짖
 되 아버지는 구해 주지 않네. 父母되어 내버려 둬는 이 어찌된 심성이냐?
 하늘에 묻는다 해도 가난이 병인 것을”⁸⁰⁾ 송강은 이 시 <賣薪吟>에서
 민생의 참상을 한탄함으로써 ‘民時病俗’의 자연관을 보였다.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도랑에 버린 상황을 하늘에 호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묘사가 자연묘사인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을 묘사
 함으로써 두터운 인정을 드러내어 濼柔敦厚한 시정신을 보여 주었기 때
 문이다. 예부터 ‘不忘百姓之病’과 ‘民時病俗’의 자세를 바탕으로 하여 백
 성들의 생활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과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
 사하되, 두터운 인정을 나타내는 문학을 높이 여겨왔다. 송강도 일부 작품
 에서 현실묘사로 두터운 인정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강구하지 못했다.

4. 結 論

松江의 문학적 근원은 중국 문학에 있다. 그의 한시에는 중국 역사와
 고사, 경서 내용들이 用事되고, 중국 시인들의 문학 작품들이 點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용사나 접화가 되었다고 하여, 그 작품이 질이 떨어진다고
 나 표절된 것은 더욱 아니다. 새롭고도 알찬 뜻을 더했기에 用事라 하고
 點化라고 평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시작법은 그의 방대한 독서량을 보
 여 줄 뿐만 아니라 문학적 역량도 기능하게 한다. 또한 송강의 뛰어난 한
 글 가사와 시조 작품은 그의 한시에서 시적 근원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
 듯 송강의 한시는 송강 문학의 근원을 이루는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80) 鄭澈, 『松江全集』, 『拾遺』 <賣薪吟>.

다. 여기서는 『시경』과 『초사』의 내용을 용사한 것과 점화한 작품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新意를 드러낸 작품도 있었고, 단지 인용 수준에 그친 경우와 도습이라 비난받을 만한 한시도 있었다. 본고에서 용사와 점화를 살핀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서 용사와 점화를 구별하지 못하고 연구가 행해지거나, 용사와 점화된 줄도 모르고 작품을 분석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儒者의 自然觀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 내지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自然만을 보고 賞自然의 아름다움만을 예찬하는 그런 자연관도 아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유자의 자연관을 인생관과 전혀 별개의 영역으로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만 추구하여, 서구적 관점에 따른 자연관과 자연적 소재가 지닌 특징만을 살피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出處觀이나 人倫의 道를 행하는 등의 인간 생활과 관련된 관점, 그리고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을 현실과 연관시켜 보는 관점 등이 모두 유자의 자연관이다. 아무 때나 은거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벼슬길만 추구하려고 했는가? 그것도 아니면 유교의 적극성을 보이면서 전통적인 선비정신에 따라 ‘權道’를 행하면서 벼슬할 만한 때 출사했는가? 등을 살피는 것도 유자의 자연관을 옳게 파악하는 한 방법인 것이다.

송강의 한시 작품을 통해 그의 작품에 반영된 유자의 선비정신과 자연관을 살펴본 결과, 연군지정·우국지정·충절에 있어 다소 지나친 점이 있었다. 나라가 累卵之危의 처지에 있을 때는 출사하여 충절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붕당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정여립 모반 사건 때 송강 스스로 조정에 나아가 의정부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며, 그때 처리한 그의 행적들은 다소 문제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때 송강이 출사하여 행한 행적은 유자의 선비정신과 자연관에 따라 말은 바의 입무

를 다했는지 아니면 편당에 치우친 태도를 보였는지는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낙향하거나 유배당했을 시에 지나친戀君도 유자의 자연관에 적합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 임난 당시 조정 운영에 있어 편당에 치우치지 않고 국정에 임했는지도 그의 행적과 더불어 자세히 고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出處觀을 살펴보는 것도 유자의 자연관인 것이다. 우주의 질서 내에 있는 것은 모두 자연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삶이 가장 절실한 자연이다. 사람은 天道를 본받아서 人道를 지극히 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유자의 자연관에 따라 송강의 한시에 나타난 인생관은 전통적인 유자로서의 적극적인 출처관도 있었지만, 다소 지나친 면도 있었다. 임진왜란 시 선조를 도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점이나, 은거하면서도 현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입을 그리워하면서 소인배들의 참소를 걱정하는 면은 유자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송강의 한시 중 일부에는 ‘民時病俗’의 자연관을 통해 ‘不忘百姓之病’의 선비정신을 보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精切하지 못한 용사와 도습, 그리고 지나치게戀君을 지향한 것은 후대의 독자들이나 비평가들로부터 비난받을 소지를 남겼다. 그리고 상대방을 용인하지 못한 편협한 사고는 없었는지 등도 선비정신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송강의 문학이 철저한 유자의 문학관에서 ‘麤而翹之’⁸¹⁾했는지, 그리고 ‘慕賢而容衆’⁸²⁾하였는지 아니면 ‘隱惡而揚善’⁸³⁾하였는지 등을 유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고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81) 李相玉 譯著 『禮記』(下), 『儒行』篇, 明文堂, 2003 참조.

82) 李相玉 譯著(2003), 위의 책, 1509쪽.

83) 『中庸』, ‘大知’章 참조.

참고문헌

- 宋刊本十三經注疏附校勘記, 『詩經』, 藝文印書館, 1981.
 _____, 『論語』, 藝文印書館, 1979.
 _____, 『禮記』, 藝文印書館, 1979.
 『孟子』·『大學·中庸』, 景文社, 1979.
 『古文眞寶』, 景仁文化社, 1983.
 『唐詩三百選』.
 司馬遷, 『史記列傳』.
 魏慶之, 『詩人玉屑』, 『欽定四庫全書』本, 『中國詩話總編』收錄, 商務印書館, 1989.
 臺靜農 編, 『百種詩話類編』, 藝文印書館, 1974.
 崔 滋, 『補閑集』.
 류성준 편저, 『楚辭』, 문이재, 2002, 1~164쪽.
 李相玉 譯著, 『禮記』(下) 明文堂, 2003, 1217~1511쪽.
 정요일, 『논어강의』(天), 새문사, 2009.
 _____, 『논어강의』(地), 새문사, 2010.
 _____, 『논어강의』(人), 새문사, 2010.
 鄭 澈, 國譯 『松江集』, 松江遺蹟保存會, 1988.
 _____, 『松江全集』, 『拾遺』,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影印本, 1964.
- 金甲起, 『松江 鄭澈의 漢詩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1~244쪽.
 金善子, 『松江 鄭澈의 詩歌 研究』-漢詩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1~125쪽.
 金聖基, 『松江의 漢詩에 나타난 自然觀』, 『人文學志』, 忠北大學校 人文學研究所, 1993, 189~199쪽.
 金廷珉, 『松江文學의 思想的 背景과 自然觀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1~212쪽.
 _____, 『松江의 漢詩에 나타난 自然觀』, 『漢字漢文教育』 제18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007, 583~616쪽.

- 董 達, 『朝鮮詩歌에 나타난 中國詩文學의 受容樣相 研究』,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1~421쪽.
- 문철호, 『松江文學 研究』-漢詩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1~164쪽.
- 朴俊圭, 『松江의 詩에 나타난 自然觀 研究』, 『국어문학』 20권, 1979. 33~60쪽.
- 俞睿根, 『松江 鄭澈 文學 研究』-漢詩文을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5, 1~226쪽.
- 윤인현, 『다산의 한시에 나타난 선비정신과 자연관』, 『다산학』 19호, 2011, 122~123쪽.
- _____, 『松江 鄭澈의 漢詩에 나타난 用事와 點化』, 『大東漢文學』 第42輯, 대동한문학회, 2015, 95~123쪽.
- 鄭堯一, 『儒家의 自然觀』 『語文研究』 제148號, 韓國語文教育研究會, 425~442쪽.
- 崔珍源, 『松江과 孤山의 詩境』, 『論文集』 3집, 성균관대학교, 1958, 122~135쪽.
- 崔台鎬, 『鄭松江 文學 研究』,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1~183쪽.

ABSTRACT

Theory of composition method(作法) represented in the Chinese poems
of Songgang, Jeong Cheol and The view of nature
of Confucian scholar(儒者)

Yun, In-hyun

This study comprehends the meaning of Book of Songs and Invitatory accommodated in the Chinese poems of Songgang, Jeong Cheol and examines the view of nature of Confucian scholar represented in his Chinese poems. As a result, I could understand that he quoted Chinese history and tales and contents of the Confucian classics and renewed literary works of Chinese writers in order to enrich the contents of his literary works. However, some of his works were accused of imit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quotation and renewal made in this study will serve as a momentum to fix the error of the existing studies which confused the quotation with renewal.

The view of nature of Confucian scholar does not only see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materials in the Western point of view but also reargues it in the Confucian scholar's point of view. The view of nature of Confucian scholar is related with the political view of taking up public office, human life such as taking the way of moral laws, and connecting the beauty of landscape of nature with the reality.

The view of nature of Confucian scholar reflected on the Chinese poems of Songgang contained the yearning for his king of lord, patriotism, and loyalty. He showed the feature of patriotism and loyalty by entering government service in the national crisis, but in the meantime, he showed wrong faction with excessive yearning for his king of lord.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reveal that if the literature of Songgang expostulated the faults of the king according to thorough

literary view of Confucian scholar, had an affection for benevolent persons and embraced the public, or hid the others' weakness and revealed their virtue to the world in the viewpoint of classical scholar's mind.

Key Words Songgang, Chinese poem, Book of Song, Invitatory, quotation, renewal, view of nature of Confucian scholar, classical scholar's mind

논문투고일 : 2015. 3. 29

심사완료일 : 2015. 5. 23

게재확정일 : 2015. 6. 4